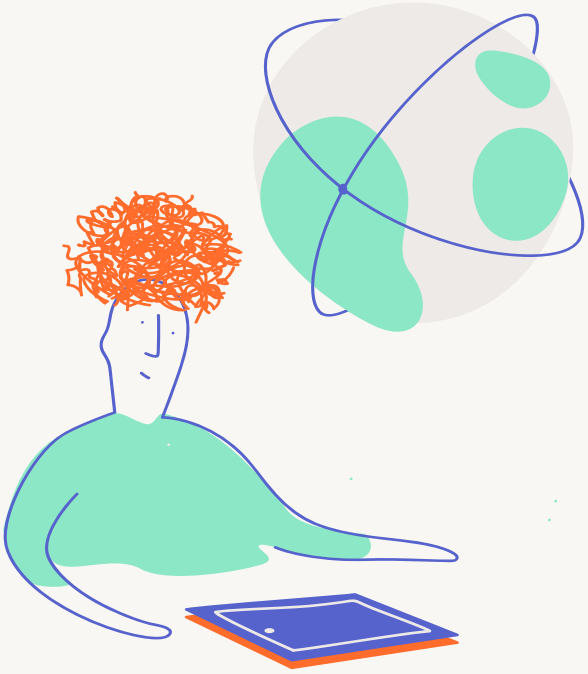
# 교육 종사자를 위한 #chatsafe

## 자살에 대한 안전한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용 지침



chatsafe

© Orygen

본 출판물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저작권법 1968(Copyright Act 1968) 및 후속 개정법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출판물의 어떠한 부분도 Orygen의 사전 서명 승인 없이 수단을 불문하고 재생산, 저장 또는 전송할 수 없습니다.

**제안 인용**

Orygen, 2020, #chatsafe for educators: how teachers can support safe online communication about suicide(교육 종사자를 위한 #chatsafe: 자살에 대한 안전한 온라인 소통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용 지침), 호주 멜버른

**고지 사항**

이 정보는 의학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정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것으로, 개인적 상황, 신체적 건강, 정신 건강 또는 정신 상태 요건을 고려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보를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의학적 상태를 치료 또는 진단하는 데 이용해서는 안되며, 여기에 나와 있는 특정 정보로 인해 의학적 조언을 무시하거나 의학적 도움을 구하는 일을 미뤄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모든 의학적 문제는 전문 의료인과 상담해야 합니다.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나 의학적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Orygen**

Locked Bag 10
Parkville, Vic, 3052
Australia

www.orygen.org.au

# #chatsafe란 무엇인가요?

호주를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자살 관련 보도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전문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보다는 전통적인 형태의 신문 및 인쇄 매체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언론인과 전통적 형태의 미디어에 초점을 맞춘 전략은 젊은 세대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acebook은 #chatsafe 가이드라인(1)을 만들었습니다. #chatsafe 가이드라인은 젊은 세대가 소셜 미디어에서 자살에 대해 안전하게 소통하도록 직접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증거 기반 도구 및 팁 모음입니다. 젊은 세대, 미디어, 자살 예방 전문가와 협력하여 개발한 이 가이드라인은 호주 전역의 젊은 세대와 협업하여 만든 소셜 미디어 캠페인의 지원을 받습니다(2).

이 가이드라인은 다음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자살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기 전에, 2) 자살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 감정 또는 경험 공유하기, 3) 자살에 대한 생각, 감정 또는 행동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 사람과 소통하기, 4) 자살 충동을 느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대하기, 5) 추모 웹사이트, 페이지 및 비공개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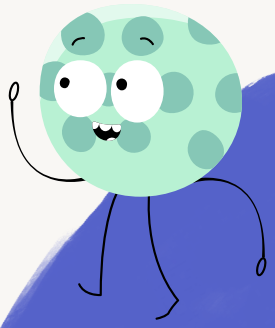
#chatsafe 웹사이트(www.orygen.org.au/chatsafe/)에서 #chatsafe 가이드라인의 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chatsafe 가이드라인은 Facebook 안전 센터의 온라인 행복 지원 센터 섹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 종사자를 위한 #chatsafe

학생들은 교사를 믿을 수 있는 어른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살은 교실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입니다. 학생들은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의 자살 관련 생각, 감정 또는 행동에 대해 상담하기 위해 여러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소셜 미디어에서 자살 관련 콘텐츠를 보거나 온라인에서 자살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학생에 대해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살이라는 주제는 교과서나 영화 뿐 아니라 유명인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경우 각종 미디어에서도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자살에 대해 안전하게 소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chatsafe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에서는 자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안전한 언어 사용에 대한 모범을 보이고, 학생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자살 관련 콘텐츠를 안전하게 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며, 이러한 콘텐츠를 어떻게 접할지를 결정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또한 젊은 세대가 직접 제작한 소셜 미디어 콘텐츠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어 학생들과 이 콘텐츠를 공유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토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에 있는 정보는 개별 학교나 대학의 정책이나 교육부(또는 관련 감독기관)에서 제공한 지침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이 자료의 정보는 학생의 연령대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chatsafe 콘텐츠는 16~2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되어서, #chatsafe 콘텐츠에 대해 토론할 때는 교육 대상 학생의 연령/학년 수준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는 #chatsafe 웹사이트 및 #chatsafe Instagram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가 있으며, 이 자료에 나오는 주제를 다루며 학생들에게 친숙한 애니메이션 동영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학생들과 공유하거나,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젊은 세대는 도움과 지지를 구하거나 제공하는 데 소셜 미디어를 활용합니다.

젊은이들은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소셜 미디어에 할애하고 있으며 Facebook, Instagram, Snapchat 등과 같은 플랫폼이 자신의 생각, 감정 및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해를 비롯하여 자살과 관련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chatsafe의 목표는 이러한 대화가 안전하고, 도움이 되며,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Facebook은 젊은 세대가 이 주제에 대해 안전하게 대화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러한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젊은 세대는 소셜 미디어의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 소속감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도움을 구하고 정보를 찾을 때 이용하기 쉽고 적절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 자신의 감정을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온라인에서 자살 관련 내용에 노출되는 것은 젊은 세대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정보가 안전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공유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유형의 콘텐츠(예: 그래픽 정보 또는 이미지)는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고 모방 자살 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류 미디어가 책임감과 배려 있는 방식으로 자살에 대한 정보를 다루면 자살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chatsafe 가이드라인은 젊은 세대가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소통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책임감 있고 세심한 방식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를 권장합니다.

## 안전한 소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안전한 소통은 #chatsafe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안전한 소통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언어,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정보의 유형, 서로에게 제공하는 도움이 포함됩니다. 젊은 세대에게 믿을 수 있는 어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a) 안전한 소통과 안전하지 않은 소통을 구분하고, b)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안전한 소통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말의 중요성

#chatsafe는 온라인에서 자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움이 되고 안전한 말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도움이 되는 말:**

- '자살을 저지르다' 대신 '자살로 사망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세요(아래의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예시 참조).
- 자살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데에는 수많은 요인이 영향을 준다고 언급하세요.
- 희망과 극복의 메시지를 포함하세요.
- 자살에 대해 고민할 것 같은 사람에게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자살을 막을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세요(예: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기, 관계를 쌓고 유지하기).
- 자살은 예방 가능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치료로 극복할 수 있으며, 회복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세요.
- 젊은 세대가 자신의 감정에 대해 친구, 믿을 수 있는 어른 또는 전문가에게 이야기하도록 독려하세요.

**도움이 되지 않는 말:**

- 자살을 범죄 또는 죄악으로 묘사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예: '자살을 저지르다' 대신 '자살로 사망하다'라는 표현 사용). 이러한 말은 자신의 감정이 잘못됐거나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암시를 주거나, 도움을 요청하면 다른 사람이 자신을 쉽게 판단할 것이라는 걱정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 자살을 문제, 스트레스 요인, 정신적 괴로움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 자살을 미화하거나 낭만적 또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 자살을 사소한 일로 보이게 만들거나 실제보다 덜 복잡해 보이게 만드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세요.
- 괴롭힘 또는 소셜 미디어 이용 등 어떤 하나의 사건을 탓하거나 자살이 한 가지 원인에 의한 결과라고 암시하지 마세요.
- 자살에 대한 신화, 오명, 고정관념을 강화하거나 자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암시하는 단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마세요.
- 실제로 일어난 자살 또는 자살 시도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지 마세요.
- 자살 방법 또는 장소에 대해 언급하지 마세요. 특정 장소(또는 자살로 유명한 장소)에서 다수의 자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자살에 대한 대화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되지만 희망과 극복, 그리고 도움 요청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돼야만 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믿는 누군가에게 감정을 털어놓도록 유도하고, 자살의 원인은 복합적이며 예방 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언제라도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전달하면 학생들이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정보 공유

#chatsafe 가이드라인은 젊은 세대가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리기 전에 잠시 동안 해당 정보의 내용과 그 정보를 공유하고 싶은 이유를 생각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러한 게시물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해당 정보를 더 안전하거나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청(소)년이 온라인에 자살 관련 내용을 공유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 게시물은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퍼져 나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게시물을 보거나 공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이 부정확하거나, 낙인 효과를 불러일으키거나, 안전하지 않은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에 올리는 게시물은 영구적으로 남습니다. 다른 사용자들이 이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릴 때는 안전하지 않거나 유해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행동에 대한 현재 또는 과거의 경험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그가 올린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관해 언급할 때는 다음 질문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경험을 공유하면 어떤 감정이 드나요? 예를 들어, 고통스러운 감정이 든다면 게시물을 공유하기 전에 형제자매나 믿을 수 있는 어른 또는 친구에게 먼저 검토해달라고 요청해볼 수 있어요.
- 경험을 공유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관심을 받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도움을 얻고 싶은 건가요?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 자살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 행동과 관련된 현재 또는 과거의 경험에 대해 도움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친구 또는 수단이 있나요?
- 누가 게시물을 보게 될까요? 예를 들어 정신 건강 관련 전문 사이트, 익명 플랫폼 또는 공개 플랫폼 중 어떤 곳에 게시하나요?
- 게시물을 올리면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게시물을 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알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면 자신이 받은 도움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 도움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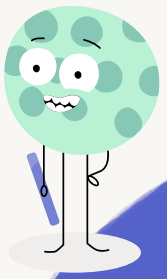
적절한 상담 기관, 지역 자살예방센터, 또는 응급 서비스의 전화번호 (예, 1577-0199, 1393)나 링크를 포함해 공유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자살 예방 자원도 있습니다.

#chatsafe 가이드라인에서는 해당 지역에 제공되는 지원 서비스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

#chatsafe 가이드라인에서는 누군가 신변을 걱정시킬 만한 게시물을 온라인에 공유했다면 그 게시물을 본 학생이 그들과 직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대화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믿을 수 있는 어른(예: 교사)이나 친구들에게 이를 알리고 가능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안내합니다.

여러분의 학생이 누군가를 걱정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세요.



**"친구가 걱정을 끼치는 게시물을 올렸나요? 친구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연락을 받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와 소통하고 지지를 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를 받아들이세요. 단,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의 유형이 어떤 것이며 언제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chatsafe 가이드라인에서는 친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기 전에 먼저 다음 질문을 통해 청(소)년 자신에 대해 점검할 것을 제안합니다.

-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걸까?
-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고 더 종합적인 도움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걸까?
- 내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를 위험하게 하거나 불안하게 만들까?

콘텐츠의 내용이 걱정할 만하거나 해당 청(소)년이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의 한계를 인정하고 직접 연락하는 게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청(소)년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 특히 친구나 동료가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비밀로 유지해달라고 말하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청(소)년들은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 믿을 수 있는 어른이나 친구에게 알립니다.
- 전문가의 조언을 구합니다.
- 관련 플랫폼에 자살을 암시하는 콘텐츠를 신고합니다(예: Facebook 안전 센터).

## 누군가에게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지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어떤 학생이 자신이 걱정하고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접촉해서 자신이 걱정하고 있으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를 권장합니다. 그러면 위험한 상태에 처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 경험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살을 생각 중인지 물어보는 것이 자살을 행동에 옮길 가능성을 높인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질문은 직접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 "자살을 생각하고 있나요?"
- "죽고 싶은 충동이 드나요?"
-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이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완벽하거나 알맞은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응원하고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낫습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자살 **위험이 임박한** 상황이거나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119에 전화해 자신의 위험 상황을 신고하도록 그들을 설득합니다.
- 그들의 가족이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의 지인에게 연락합니다.
- 그들 자신이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을 대신하여 119에 전화하세요. 그러면 119의 직원이 여러분의 이름과 연락처, 자살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의 정보, 위험 상황에서 했던 말, 게시물/메시지 작성 시간, 그들의 현재 위치(아는 경우)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살 **위험이 임박한 경우는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안심시키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조언합니다.
- 대화를 하고 싶다거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지 물어봅니다.
-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을 알고 있는지, 지역 내 지원 서비스의 연락처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지 물어봅니다.
-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하지 않더라도 의사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에게라도 이야기하도록 유도합니다.

# 자살로 죽은 사람에 대해 온라인에서 안전하게 대화하기

자살로 죽은 사람을 떠올릴 때면 그러한 상황에 대해 안전한 방식으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기억하세요.

**이러한 대화는 자연스럽게 벌어집니다.**

- 학생들은 이러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며, 이 주제에 대해 친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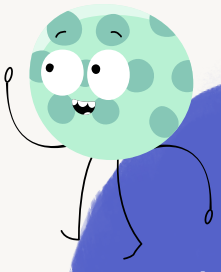
- 이러한 대화를 편하게 유도하려면 안전한 언어를 사용하는 모범을 보이고,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며,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 절망감은 복합적인 상황에 의해 만들어지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 중 자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러한 대화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hatsafe는 자살에 대한 생각, 감정 또는 행동과 관련된 콘텐츠를 공유할 때는 항상 콘텐츠 경고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사용자들에게 '미리 알림'을 전달하여 온라인에서 보게 되는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chatsafe에서는 학생들이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콘텐츠 경고 예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대화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학생들이 자살로 죽은 사람에 대해 온라인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면 긍정적인 이야기와 기억을 공유하기에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그러면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는 학생들이 건강한 상태인지 지켜보고 더 나아가 자살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상의 대화와 게시물에 안전하지 않은 메시지가 있는지 항상 모니터링하고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소셜 미디어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보나 루머는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살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미화 또는 비하하는 콘텐츠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취약한 사람의 경우 이러한 콘텐츠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에 공유되는 대화와 정보가 적절하고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의 학교 및 커뮤니티에서 취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조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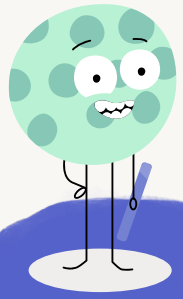


**"자살로 죽은 사람을 떠올릴 때 반드시 어두운 상태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 스스로 돌보기 실천 및 자신이 접하는 콘텐츠 통제

#chatsafe는 스스로 돌보기를 실천하고 항상 자신의 상태가 건강한지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소셜 미디어 이용을 잠시 중단하거나, 다른 활동에 참여하거나, 소셜 미디어 뉴스피드를 통제(안전하지 않은 콘텐츠를 차단, 신고 또는 숨기기)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너무 힘겨운 문제를 안고 있다면 스스로 돌보기를 실천하고 문제와 잠시 떨어져 있어도 괜찮다고 알려주세요.



**"문제가 너무 힘겹게 느껴진다면 먼저 스스로를 돌보도록 하세요."**

**"온라인에는 다양한 옵션이 있으며 스스로 뉴스피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자료

### 기타 다운로드 가능한 자료

- #chatsafe 콘텐츠 경고 템플릿
- 유해 콘텐츠에 대처하기 위한 부모 및 보호자용 자료
- #chatsafe: 커뮤니티를 위한 가이드

### 온라인

- #chatsafe 웹사이트
- Orygen 사이트의 #chatsafe 교육 종사자용 교육 모듈

중앙자살예방센터 (T. 1393, 1577-0199)
www.spckorea.or.kr

마인드링크 (청년정신건강센터)
www.mindlink.or.kr

### 참고 자료

Robinson, J., Hill, N., Thorn, P., Teh, Z., Battersby, R., & Reavley, N., #chatsafe: A young person's guide for communicating safely online about suicide(자살에 대한 젊은 세대의 안전한 온라인 소통을 위한 가이드). 멜버른: Orygen, The National Centre of Excellence in Youth Mental Health, 2018

Thorn P, Hill NT, Lamblin M, et al. Developing a Suicide Prevention Social Media Campaign With Young People(젊은 세대가 참여한 자살 예방 소셜 미디어 캠페인 개발, #Chatsafe 프로젝트): Co-Design Approach. JMIR Ment Health. 2020;7(5):e17520. 2020년 5월 11일 발행. doi:10.2196/17520

chatsafe | orygen